

【논 문】

## 자살의 충동에 사로잡힌 칠레 현대사

— 호르헤 에드와르즈의 『초대받은 석상들』 —

우 석 균

(서울대 어학연구소 연구원)

1973년 9월 11일 피노체트(Augusto Pinochet)의 쿠데타는 모든 칠레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쿠데타 이전과 이후로 뚜렷이 갈라놓은 격변이었다. 문인들에게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1973년 9월 11일 이후에는 문학을 한다는 것은 곧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라는<sup>1)</sup> 하이메 콘차(Jaime Concha)의 지적처럼, 이들은 앞을 다뤄 쿠데타가 야기한 정신적 충격을 작품으로 형상화하는데 몰두했다. 이렇게 해서 소위 칠레 독재 소설이라는 일련의 작품군이 탄생한다. 페르난도 알레그리아(Fernando Alegria)의 『거위의 행진』(*El paso de los gansos*, 1975)과 『전쟁 도축장』(*Corral de guerra*, 1979), 안토니오 스카르메타(Antonio Skármeta)의 『백설이 불타오르는 꿈을 꾸었네』(*Soné que la nieve ardía*, 1975)와 『불타는 인내』(*Ardiente paciencia*, 1979), 폴리 델라노(Poli Délano)의 『이 성스러운 장소에서』(*En este lugar*

---

1) Jaime Concha, “Testimonios de la lucha antifascista”, *Casa de las Américas*, No.112, 1979, p.98.

*sagrado*, 1977)와 『아무도 죽지 않는 것처럼』(*Como si no muriera nadie*, 1987), 아리엘 도르프만(Ariel Dorfman)의 『칠렉스』(*Chilex*, 1978), 호세 도노소(José Donoso)의 『전원 주택』(*Casa de campo*, 1978)과 『절망』(*La desesperanza*, 1986), 이사벨 아옌데(Isabel Allende)의 『영혼의 집』(*La casa de los espíritus*, 1982) 등이 그것이다. 이들 중에는 도노소처럼 그때까지 직접적으로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을 거의 쓴 적이 없는 이도 끼어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만큼 쿠데타의 충격이 컸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호르헤 에드와르즈(Jorge Edwards, 1931-)의 『초대받은 석상들』(*Los convidados de piedra*, 1978) 역시 칠레 독재 소설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이다. 도노소와 같이 1950세대의 대표적 소설가인 에드와르즈 역시 인간의 실존적 고뇌 등 주로 개개인의 내면 탐구에 몰두하던 이전의 작품 세계와는 달리 『초대받은 석상들』에서는 칠레의 20세기 역사를 분석하여 쿠데타에 이르게 된 사회적 동인을 찾아내려는 ‘참여적’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작품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에드와르즈에게 늘 따라다닌 ‘부르주아 작가’라는 편견, 라틴아메리카 좌파 지식인들의 메카 쿠바를 비판하는 책을 쓴 적이 있다는 전력, 그리고 『초대받은 석상들』의 주요 인물인 공산주의자 실베리오 몰리나(Silverio Molina)의 좌파적 도덕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다. 그러나 『초대받은 석상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실베리오보다는 화자에게서 발현되기 때문에 실베리오를 둘러싼 도덕성 논쟁은 작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게다가, 에드와르즈의 의도가 좌파의 도덕성을 부각시키는 작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좌파와 우파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I. 역사적 주체의 부재

『초대받은 석상들』은 1891년 발마세다(José Manuel Balmaceda) 대

통령이 쿠데타 이후 자살한 무렵부터 1973년 쿠데타 발발 후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가 대통령 궁을 사수하다 최후를 맞이한 때까지 80여 년에 걸친 칠레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두 시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된다. 아옌데 정권 시절(1970-1973)과 등장 인물들의 유년기인 1946년의 여름이다. 이 소설의 수많은 등장 인물들은 발빠라이소(Valparaíso) 근처의 라 뽀따(La Punta)라는 고급 휴양촌에서 매년 여름을 날 정도로 대부분 원래 상류층 자제이다. 소설은 쿠데타 직후의 어느 날 이들 중 하나인 세바스띠안의 집에서 열린 생일 파티에서 과거를 회고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유년기의 친구들 모두가 생일 파티에 참석하지는 못했다. 급격한 사회 변동의 와중에서 일부는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살고 있었고, 또 일부는 좌파 운동을 벌이다가 쿠데타로 인해 죽거나 도피 중이었기 때문이다. 파티에 오지 못했으면서도 모인 이들의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초대받은 석상들인 것이다.<sup>2)</sup> 이들 중에서도 중심 인물은 단연 실베리오 몰리나였다. 그의 집안은 원래 라 뽀따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가문이었다. 라 뽀따에 처음으로 정착한 이가 실베리오의 조상이었던 데다가, 사회적 지위나 카리스마를 뽐어내는 강인한 풍채와 성격 등으로 대대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토호 집안이었기 때문이다. 생일 파티에 모인 이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이 19세기말에 형성된 부르주아의 후손들이라면 실베리오는 토지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지주 가문의 후손이라는 점이다. 어쨌든 이들은 칠레 상류층을 형성하는 두 부류로 기득권 옹호를 위해 다른 계층에게 배타적이었다. 그런데 실베리오는 어느 날 혁명 투사로 변신하여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정도로 투쟁적인 삶을 살다가 쿠데타 이후 비참하게 삶을 마치게 된다. 가장 상징적인 가문의 후손이 어째서 자신의 계급을 ‘배신’하고, 어떤 최후를 맞이하였는가 생일 파티

2) 이 제목은 스페인의 극작가 티르소 데 몰리나(Tirso de Molina)의 『세비야의 난봉꾼과 초대받은 석상』(*El burlador de Sevilla y convidado de piedra*, 1630)에서 빌어온 것이다.

에 모인 이들의 주관심사이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혁명 투사로 살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베리오의 인물상은 쟁점이 되었다. 스까르메타의 비판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생일 파티에 모인 반동 부르주아들이 좌파 인사에 대한 평을 한다는 작품 구도 자체부터 문제삼았다. 반동 부르주아들이 좌파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겠냐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또 실베리오의 출신 성분이 지주라는 점과 투쟁 과정에서 보여준 불미스런 일들이 좌파를 회화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sup>3)</sup> 물론 실베리오가 항상 투철한 의식을 지닌 투사로써 시종일관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공산주의자가 되기 이전에는 자기 집 재산을 훔쳐 유흥비로 탕진할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했고, 1940년대 말 공산주의자가 된 이후 계속되는 좌파의 좌절로 낙심하여 한때 술로 세월을 보내기도 했으며, 여자 탈의장을 들여다본 일로 당내에서 자아비판까지 한 적도 있었다.<sup>4)</sup>

칠레 좌파의 에드와르즈에 대한 비판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그가 ‘부르주아’ 작가로 매도된 것은 젊었을 때부터의 일로 ‘에드와르즈’라는 성이 지닌 상징성 때문이었다. 에드와르즈 가문은 19세기 때부터 광산과 은행 그리고 메르꾸리오지를 소유한 대표적 부르주아 가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편견이었다. 호르헤 에드와르즈는 사실 이 가문의 방계에 속한 터라 그 막대한 재력과 별 상관 없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1973년 『기괴 인물』(*Persona non grata*)라는 쿠바를 비판한 책을 낸 사건은 두고두고 그를 따라다녔다. 사실 에드와르즈는 공산당이나 사회당에 가입한 적은 없었지만, 60년대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지식인들 처

3) Antonio Skármeta, “Narrativa chilena después del golpe”, *Casa de las Américas*, No.112, 1979, p.92.

4) 묘한 것은 칠레의 최대 일간지이며 보수주의 색채가 농후한 메르꾸리오(*El Mercurio*)지의 전문 서평가 이그나시오 발렌테(Ignacio Valente) 역시 에드와르즈가 『초대받은 석상들』에서 계엄령 하에서 생일 파티를 열고 진탕 술이나 마시고 있는 이들을 묘사함으로써 칠레의 상류층을 회화화했다고 분노하고 있다는 점이다(Ignacio Valente, “Reseña” a *Los convidados de piedra*, *El Mercurio*, 25-VI-1978).

럼 좌파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1968년 쿠바의 <아메리카의 집>(Casa de las Américas)이 매년 수여하는 문학상 심사위원으로 그를 위촉하자 ‘약속의 땅’ 쿠바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동경하여 주저 없이 휴직을 택한 이력도 있었다. 또 복직해서는 보수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외무부 내에서 거리낌없이 좌파임을 밝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대공산권 국가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였고, 아옌데 정부가 들어선 후 추진한 쿠바와의 외교 관계 복원 준비를 위한 특별 사절의 책임자로 뽑혀 1970년 12월 아바나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문제는 쿠바에서 발생하였다. 부임하자마자 에드와르즈는 묘한 사실을 발견했다. 쿠바로서는 미국의 압력으로 1964년 미주 기구에 속한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쿠바와의 단교를 단행한 이후, 칠레가 처음으로 관계 복원을 선언했음에도 이를 위해 파견된 에드와르즈에게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후에 그는 자신이 쿠바 정부에 의해 ‘기피 인물’로 이미 낙인찍혔음을 알게 되었다. ‘에드와르즈’라는 성에 대한 편견이 또 다시 작용했지만, 무엇보다도 작가 출신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의 쿠바는 이데올로기적·사회적으로 경직되어 가는 중이었다. 카스트로(Fidel Castro)가 1968년 소련의 프라하 침공을 지지한 사건으로 서구와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지식인들의 쿠바에 대한 지지가 예전 같지 않았고, 사탕수수 천만 톤 생산이라는 국가 목표를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불만도 팽배해 있었다. 그런데 작가들을 비롯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불만의 목소리가 외부로 분출되었고, 카스트로가 예전과는 달리 이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더욱 나뉘었던 것은 에드와르즈가 친교를 맺은 쿠바 작가들이 호세 레사마 리마(José Lezama Lima)나 에베르토 빠디아(Heberto Padilla)<sup>5)</sup> 같이 쿠바 정보부로부터 불만 세력으로

5) 1971년 에드와르즈가 쿠바를 떠난 직후 빠디아는 쿠바의 작가예술인 협회(UNEAC)에서 자신이 반혁명 분자였던 것을 반성한다는 요지의 자아 비판을 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사르트르,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등은 즉각적으로 쿠바를 비난하면서 등을 돌린다. 빠디아 사건은 쿠바 혁명 이념의 퇴색을 알린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낙인찍힌 문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었다.<sup>6)</sup> 약 백 일간의 쿠바에서의 특별 임무 기간 동안 에드와르즈는 정보부의 감시를 받고있다는 강박 관념에 시달렸다. 그리고 감시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었음을 출발 전날 알게 된다. 카스트로가 그를 불러 ‘반체제’ 성향을 가진 인물들과 어울린 사실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그를 감시했음을 밝혔던 것이다.<sup>7)</sup> 훗날 빠디아의 회고에 따르면 쿠바 정보부는 빠디아가 그 즈음에 탈고한 소설이 ‘반체제’적이라고 규정했고, 빠디아가 에드와르즈를 통해 원고를 스페인 출판사에 넘기려고 했다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sup>8)</sup>

다음 임지인 파리로 간 에드와르즈는 곧 쿠바에서의 경험을 담은 비망록 작성에 전념한다. 원고는 이미 1972년 상반기에 끝을 맺었으나 출판 시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빠디아 사건으로 쿠바 혁명 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일부 터져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쿠바를 정면으로 비난하는 책을 출판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 이듬해 마침내 출판을 결심한 에드와르즈는 휴직을 하고 바르셀로나에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가 피노체트 쿠데타로 파직된다. 또 다시 비망록을 출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출판을 강행한다. 쿠바를 지지하는 인사들로부터의 비난도 걱정스러웠지만, 피노체트 쿠데타로 칠레 좌파 인사들이 고초를 겪을 때 좌파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내는 터라 상당 부분은 스스로 삭제하였고, 무삭제판은 1982년에야 빛을 보았다. 그러나 자체적인 검열까지 행한 신중한 에드와르즈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출판은 좌파의 거센 비판을 야기한 국제적인 스캔들이 되었다. 에드와르즈는 ‘20세기 지식인이 따라서는 안될 표본,’<sup>9)</sup> ‘구더기가 존재한다는 증거’<sup>10)</sup>라는 참기 힘든 비난을 받아야 했다. 『초대받은 석상들』에 대한

6) Jorge Edwards, *Persona non grata*, versión completa, Barcelona: Seix Barral, 1982, p.206.

7) 앞의 책, p.335.

8) Heberto Padilla, *La mala memoria*, Barcelona: Plaza & Janes, 1989, p.148.

9) Roberto Magni, “Carta de batalla contra Edwards”, *Post data*, marzo-abril, 1974, p.13.

스카르메타의 비판은 ‘반동 분자’로 낙인찍힌 에드와르즈의 이런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물론 『초대받은 석상들』이 비판만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페르난도 알레그리아는 안락한 상류층 생활을 버리고 투쟁의 길로 접어든 실베리오를 높이 평가했다.<sup>11)</sup> 또 비센테 우르비스톤도(Vicente Urbistondo)는 실베리오를 루카치 소설 이론의 ‘문제적 인간’이나 노스롭 프라이 이론의 ‘서사적 지도자’(‘líder épico’)로 격상시키기도 했다.<sup>12)</sup>

문제는 스카르메타를 비롯한 알레그리아, 우르비스톤도의 논의가 실베리오가 좌파 인사로서의 도덕성을 지니고 있느냐, 나아가 작가인 에드와르즈 같이 좌파적 도덕성을 결여한 인물이 쓴 작품을 신뢰할 수 있느냐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논의는 기본적으로 깨어 있는 의식으로 사회를 변혁시키는 주체를 상징하는 마르크스주의 비평이나 도덕관에 의거한 것이다. 그런데 실베리오는 이런 인물과는 거리가 멀다. 그의 인생에서 기점이 된 사건은 어머니에게 모욕을 가한 라 뽀따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 칼부림을 한 사건이었다. 실베리오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감옥에 갇고 이 곳에서 공산주의를 접하면서 출옥 후 혁명 투사로 변신하였다. 문제의 사건 전날 실베리오는 마치 험난한 길이 예정된 칠레 현대사의 질곡을 예감하기라도 하듯 “전혀 설명할 길 없는 피로감”(“un cansancio completamente inexplicable”, p.55)<sup>13)</sup>에 사로잡혀 몹시 불쾌해 한다. 또 실베리오를 칼부림으로 이끈 것은 어머니가 받은 모욕에 분개해서가 아니라 칠레 상류층의 내면에 면면히 내려온 뿌리깊은 “계급주의적 경멸 의식”(“desdén clasista”, p.91)이 작용했다는 설명이 독자

10) Ariel Dorfman, “Jorge Edwards: máscara non grata”, *Nueva*, p.87.

11) Fernando Alegria, *Nueva historia de la novela hispanoamericana*, Hanover: Ediciones del Norte, 1986, p.390.

12) Vicente Urbistondo, “Los convidados de piedra, una lectura ecléctica”, *Hispanérica*, No.23-4, 1979, pp.143-5.

13) Jorge Edwards, *Los convidados de piedra*, Barcelona: Seix Barral, 1978(앞으로의 모든 인용은 페이지만 적기로 하겠다).

들에게 전달된다. 다시 말해 실베리오가 주체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이고 피동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에드와르즈가 마르크스적 주체가 이끌어 가는 역사관이 아니라 구조주의적 역사관의 관점에서 칠레 역사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주지하 다시피 구조주의는 개인이 포착하기 힘든 구조가 주체를 지배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인간은 내면화된 구조에 따라 자기도 모르게 움직일 뿐 역사를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지는 못한다. 실베리오는 바로 이러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비단 실베리오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 생일 파티에 모인 이들을 비롯해 라 뽀따에서 유년기를 보낸 모든 이들이 “거의 깨닫지는 못하지만 기저에는 자기파괴적 본능”(“*instintos subterráneos, escasamente conscientes*”, p.15)을 지닌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베리오나 작가가 좌파적 도덕성을 지닌 주체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이미 『초대받은 석상들』의 작품 의도와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카르페따, 알레그리아, 우르비스폰도의 논의는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이다.

## II.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화자

그렇다면 『초대받은 석상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어쩌서 혁명 투사인 실베리오가 역사적 주체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구조주의적 관점의 역사관에 따라 움직이는 피동적 인물로 전락해버린 것일까? 이 의문들에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단서는 『초대받은 석상들』이 독특한 화자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작품 끝까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 화자 역시 생일 파티에 모인 사람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화자는 대화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이들의 대화를 듣고 종합하는 역할을 한다. 그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두서없이 펼쳐지는 대화를 엮어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인



과관계를 규명하여 독자에게 전달하기까지 한다. 그는 다른 등장 인물들이 모르는 정보 출처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sup>14)</sup> 대화에서 나오지 않은 이야기까지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다른 등장 인물들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자신의 견해를 독자에게 설득하려고까지 한다. 1891년의 쿠데타, 1946년의 유년기, 그리고 1973년의 쿠데타 사이의 상관 관계를 유일하게 깨닫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쯤 되면 거의 전지적 작가 시점에 따라 소설이 전개된다는 느낌을 줄 정도이다. 따라서 생일 파티에 모인 이들의 대화나 실베리오라는 중심 인물이 벌이는 혁명적 투쟁보다 이 화자가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더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독자로 하여금 이 화자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 에드워즈는 여러 가지 장치를 설정했다. 그는 친구들의 대화를 비롯해서 항상 무엇인가를 적는 습관을 지녀서 친구들로부터 자신들의 모임의 산 증인이자 역사가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 습관은 어릴 때부터 쿠데타가 일어난 현재의 시점까지 계속되어 온 것이다. ‘역사’라는 학문을 빌어 화자가 전하는 메시지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이며, 어렸을 때부터 주변의 일을 적는 습관을 지녔다는 설정은 독자로 하여금 유년기의 일들과 1973년 쿠데타의 인과관계에 대한 화자의 분석을 신뢰하도록 유도한다. 생일 파티에 모인 이들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던 1891년의 내전, 발마세다의 실각과 자살에 대한 화자의 평가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화자는 옛날 사료를 뒤적이는 취미가 있으며, 특히 1891년의 내전에 대해서는 모든 사료를 다 보아서 사소한 일까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p.13). 이로써 화자는 1891년, 1946년, 1973년의 사건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통찰력 있는 인물로 격상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화자에게 칠레 역사에 대한 전능한 해석의 권리를 부여하

14) María Teresa Rodríguez Isoba, “Los convidados de piedra, o la irrupción de la historia contemporánea en la narrativa de Jorge Edwards”, *Anales de literatura hispanoamericana*, No.16, 1987, p.217.

는 것이 『초대받은 석상들』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사벨 아옌데의 『영혼의 집』에서는 끌라라(Clara)가 그런 권능을 부여받는다. 그녀의 손녀 알바(Alba)는 피노체트 쿠데타 직후 수용소에서 할아버지의 사생아인 에스페반 가르시아(Esteban García)에 의해 고문과 성폭행을 겪는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지만, 문득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그녀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예정된 운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Sospecho que todo lo ocurrido no es fortuito, sino que corresponde a un destino dibujado antes de mi nacimiento”).<sup>15)</sup> 이 예정된 운명을 더듬는 일은 알바에게는 퍼즐을 맞추는 듯한 당혹감을 주었지만 그녀는 이 퍼즐을 맞춰 칠레 역사의 오류를 진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칠레에 내려진 쿠데타라는 대재앙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인과관계를 더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할머니 끌라라가 어렸을 때부터 기록한 노트이다. 다시 말해 과거의 일을 꼼꼼히 기록한 끌라라가 주요 화자인 셈이다. 이렇게 해서 끌라라는 쿠데타라는 격변에 대한 통찰력 있는 해석, 즉 역사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초대받은 석상들』과 『영혼의 집』처럼 주요 화자를 역사가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칠레 독재 소설들도 쿠데타에 이르게 된 칠레 역사에 대한 평가 작업을 어떤 식으로든 수행한다. 도노소의 『전원 주택』은 칠레 역사의 알레고리로 쿠데타에 이르게 된 책임은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 있다는 평가를 내리며, 펠리 델라노의 『이 성스러운 장소에서』 역시 쿠데타의 책임은, 사회주의 혁명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 못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인 중산층에 있다고 진단한다. 칠레 독재 소설 중 상당수가 이렇듯 역사적 평가를 담고 있는 역사 소설의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은 『영혼의 집』, 『초대받은 석상들』, 『이 성스러운 장소에서』 등이 유난히 긴 세월을 개괄하려고 한다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에드와

15) Isabel Allende, *La casa de los espíritus*, Bogotá: Oveja Negra, 1987, p.364.

르즈의 작품은 앞서 밝힌 것처럼 80여 년을, 『영혼의 집』은 20세기초부터 1973년에 이르는 4세대에 걸친 가문의 역사와 칠레 사회의 변모를 추적하고 있으며, 빨리 텔라노의 작품 역시 1950년대 초부터 쿠데타에 이르는 기간을 분석하고 있다.

1973년의 쿠데타는 역사 소설이 다루기에는 분명 너무도 가까운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설가들이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서두른 것은 쿠데타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수용소 생활을 체험하고, 고문당하고, 죽고, 추방당하고, 망명을 떠나고, 사회 분위기가 얼어붙어 마치 묵시록적인 종말을 겪고 있는 듯하며,<sup>16)</sup> 한 시대가 끝난 듯한 충격을<sup>17)</sup> 주었기 때문이다. 『초대받은 석상들』 역시 소설이 아니라 역사를 지향하는 작품이며, 이에 따라 역사 의식을 지닌 독특한 화자를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실베리오를 비롯한 다른 등장 인물들 보다는 역사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화자가 더욱 중요하다.

그렇다면 『초대받은 석상들』의 화자가 칠레 역사에 대한 내린 평가는 무엇일까? 그에 따르면 칠레의 역사에는 “상류층의 은밀한 자살의 욕망”(“el secreto deseo de muerte de la clase alta”, p.64), “타자에 대한 파괴적 본능과 자기 파괴 본능”(“un espíritu de destrucción y autodestrucción”, p.91), “배타적이면서 파괴적인 본능”(“el espíritu excluyente y a la vez destructivo”, p.241)이 관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욕망과 본능이 생긴 것이 18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본다. 당시의 대통령 발마세다는 민족주의적 기치를 내세워 칠레의 주요 수출품인 초석에 대한 영국 자본의 독점적 지위 철폐를 위해 국유화를 단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부의 지위를 강화하려 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영국 자본과 결탁하고 권력 분점을 위해 의회주의를 표방한 상류층은

16) René Jara, *Los límites de la representación: la novela chilena del golpe*, Valencia: Fundación Instituto Shakespeare/Instituto de Cine y Radio-Televisión, 1985, p.5.

17) Manuel Alcides Jofré, “La novela chilena: 1965-1988”, *Los Ensayistas*, No.22-5, 1987-8, p.197.

내전을 일으켜 대통령을 실각시켰고 발마세다는 자살하고 만다. 화자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국익을 무시한 파괴적 본능이 발현된 것이며, 결국에는 외세에 종속되고 마는 자살의 길이며, 상류층의 이익을 위해 국민적 여망에는 철저한 배타적 행동으로 결국 훗날의 계층간의 갈등과 좌우극한 투쟁 그리고 피노체트 쿠데타로 귀결되는 사건이다.

결론적으로 『초대받은 석상들』에서 실베리오를 둘러싼 논쟁은 무의미한 것이다. 논쟁의 초점은 칠레 역사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실질적인 인물인 화자에게 맞추어져야 한다. 더구나 비록 혁명 투사를 등장 인물로 삼은 적은 없으나 알코올 중독자나 몽상가 혹은 소외된 인물 등을 주로 그려온 에드와르즈의 작품 경향을 고려하면 실베리오에게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도덕적’ 결점은 새로운 것이 아닌 반면, 전지전능함을 부여받은 화자의 존재는 에드와르즈의 작품 세계가 무르익기 전의 초기 단편들 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대받은 석상들』의 화자는 분명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다.

### III. 비판적 지식인상의 확립

페르난도 알레그리아는 인간의 내면 탐구에 천착했던 1950세대와 사회참여적 경향이 강했던 1938년 세대와의 차이점에 대해 논하면서, 전자는 “문제 제기의 소설이 아니라 암시의 소설이며, 분석을 하기보다 신화화하려 한다”(“una narrativa de alusiones, no de planteamientos; de mitificación, no de análisis”)<sup>18)</sup>라고 평가한다. 1950세대가 ‘암시와 신화화’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은 그들이 설정한 화자의 특성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정보만 전달할 뿐, 그것도 명확한 설명을 통해서는 아니라 절제된 태도를 유지할 뿐,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는 화자를 선호하였다. 에드와르

18) Fernando Alegría, “La narrativa chilena(1960-1970)”, *Nueva narrativa hispanoamericana*, Vol.II, No.1, 1972, p.59.

즈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60년대 중반의 중편 소설 『밤의 무게』(*El peso de la noche*, 1964)나 단편집 『가면들』(*Las máscaras*, 1967)의 화자들은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생일 파티의 대화를 채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여 완전한 정보를 전달하려 하고, 칠레 역사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독자에게 납득시키려고 노력하는 『초대받은 석상들』의 화자의 출현은 의외의 일이다.

그런데 이 화자는 바로 에드워즈의 분신이자 대변인이다. 이는 화자가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발마세다에서 아옌데에 이르기까지 칠레 역사에 일관된 ‘자살과 파괴의 역사론’이 이미 『기피 인물』의 에필로그에서 개진되었다는<sup>19)</sup>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에드워즈가 이런 화자를 설정한 것은 자신이 60년대 이래 여러 사건, 특히 쿠바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데올로기 문제나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 세계를 평가하는 눈을 나름대로 갖추게 되었다는 자부심에서 비롯되었다.

좌파였던 에드워즈가 이데올로기적인 고뇌에 빠진 것은 처음으로 쿠바에 갔던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유’의 공기를 마시러 휴직까지 했던 에드워즈를 당혹케 한 것은 쿠바에서 정보부의 감시의 눈초리를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반면 쿠바를 뒤로하고 체코를 여행하던 그는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 프라하의 봄을 지켜보며, 기대와는 달리 쿠바에서 느끼지 못한 참된 사회주의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파리로 간 그를 기다린 것은 68 학생 운동으로 인한 서구 체제의 동요였다. 결국 1968년 에드워즈는 서구 진영도 사회주의 진영도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역사적 단계에 접어들었고, 맹목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추종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체제 유지에만 혈안이 된 수구적인 세력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자유로운 비판 의식을 획득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식인의 진정한 사명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sup>20)</sup> 좌파를

19) Jorge Edwards, *Persona non grata*, pp.255-6.

20) Jorge Edwards, *Adiós, poeta...*, 2a chilena, Santiago: Tusquets, 1991,

지지했던 에드와르즈에게 있어서 좌파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승배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적인 눈으로 검증을 해야만 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또 다른 사건들이 그의 신념을 더욱 굳게 했다. 소련의 체코 침공 때 사회주의 국가의 대사들이나 네루다를 위시한 칠레 좌파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내심으로는 프라하의 봄을 신선한 움직임으로 여기면서도 소련의 눈치를 살피는 그들의 태도를 에드와르즈는 이해할 수 없었다.<sup>21)</sup> 칠레 내부의 상황도 사회주의에 대한 예전의 신념을 녹슬게 했다. 1960년대의 칠레는 사상적으로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었다. 많은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중도 좌파 기민당(Democracia Cristiana)의 개혁 정책이 기대에 못 미친 데다가 197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좌파, 중도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폭력으로 분출되며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시를 받았던 쿠바에서의 경험이 드디어 에드와르즈를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자유로운 비판을 수행하는 지식인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데올로기 문제나 지식인의 역할에 대한 그의 생각을 잘 드러내주는 책은 『기파 인물』과 『용꼬리로부터. 칠레와 스페인: 1973-1977』(*Desde la cola del dragón. Chile y España: 1973-1977*)<sup>22)</sup>로, 에드와르즈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어떤 형태의 극단주의도 배격한다. 『기파 인물』의 권두언으로 인용한 로베스피에르의 “나는 두 당파밖에 모른다. 좋은 당파와 나쁜 당파이다”<sup>23)</sup>는 냉전 체제하에서의 서구 진영의 논리와 사회주의 혁명론을 비롯한 모든 흑백 논리에 대한 경고이다. 둘째, 소련의 프라하 침공 후의 체코 철학자 얀 파토카(Jan Patočka)의 장례식이나 피노체트 쿠데타 이후 분사한 네루다의 장례식이 철통같은

pp.172-180.

21) 앞의 책, pp.180-4.

22) 이 책은 1973년 자의반 타의반으로 스페인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하면서 바르셀로나 신문에 기고한 글을 묶은 것이다.

23) Jorge Edwards, *Persona non grata*, p.7.

경비 속에서 치러졌다는 점을 들어 지식인을 탄압하는 모든 체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sup>24)</sup> 셋째, 지식인의 자유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지식인이 비판적 기능을 수행할 때에만 사회가 이데올로기적으로 경직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며, 지식인은 이 자유를 바탕으로 냉철하면서도 유연한 비판 의식을 획득해야 된다고 주장한다.<sup>25)</sup>

모든 이데올로기를 검증해야 한다는 신념을 획득했기 때문에 에드와르즈는 쿠데타에 대한 해석을 좌파와 달리 할 수 있었다. 일례로 발마세다에서 아옌데에 이르는 칠레 역사에 대한 에드와르즈의 시각은 분명 좌파의 그것과 차이가 난다. 두 사건의 역사적 유사성을 주목한 것은 에드와르즈뿐만이 아니었다. 칠레 좌파의 상징인 네루다는 사망 10여일 전에 병상에 누워 마지막으로 쿠데타에 대한 소회를 구술하면서 칠레 역사상 발마세다와 아옌데만이 오직 민중과 조국을 위해 노력한 유일한 두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이들의 비참한 최후에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sup>26)</sup> 즉, 칠레 역사는 기득권 세력이 민중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실각시킴으로써 철저히 민중에 대한 배신의 역사라는 관점이니, 칠레의 역사는 자살의 역사라는 에드와르즈의 평가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결국 『초대받은 석상들』이 좌파적 도덕성을 지닌 작품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에드와르즈의 작품 의도와는 무관한 셈이다.

#### IV. 결론

소위 ‘사회참여’보다는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것이 작가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왔던 에드와르즈에게 있어서 칠레 역사를 해부하는 『초대받은

24) Jorge Edwards, *Desde la cola del dragón. Chile y España: 1973-1977*, Barcelona: Dopesa, 1977, p.12.

25) 앞의 책, p.166.

26) Pablo Neruda, *Confieso que he vivido*, Bogotá: Oveja Negra, p.397.

석상들』은 분명 특이한 작품이다.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쿠데타의 충격이 다른 칠레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에드와르즈로 하여금 문학을 통한 더욱 직접적인 사회 참여 방안을 모색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많은 칠레 독재 소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에드와르즈도 『초대받은 석상들』을 통해 쿠데타로 귀결되게 된 칠레 역사의 오류를 분석하려고 한다. 그리고 1891년 발마세다의 실각에서부터 1973년 아옌데의 최후에 이르는 칠레의 역사는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 다른 사회 계층에 배타적이었던 칠레 상류층의 자살과 파괴의 역사라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이 작품은 논란에 휩싸였다. 우파로부터의 비판도 있었지만, 좌파도 주요 인물인 실베리오의 도덕성을 거론하며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좌파로부터의 비판은 작품의 구성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탓이다. 주요 인물인 실베리오는 사실상 역사적 주체가 아닌 피동적인 인물일 뿐이다. 따라서 실베리오가 좌파적 도덕성을 갖춘 인물인가 아닌가가 하는 논란은 의미가 없다. 좌파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은 실질적으로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익명의 화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화자가 비록 좌파적 도덕성을 결여한 인물일 수는 있지만, 화자가 좌파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파이든 좌파이든 모든 이데올로기를 검증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쿠데타의 책임이 좌우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를 둘러싼 도덕성 논의도 사실상 작품 의도와는 무관한 일이다.

결국 에드와르즈가 『초대받은 석상들』을 통해서 주장하고 싶었던 점은 지식인의 진정한 사명은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비판이라는 것이다. 60년대 말의 일련의 세계사적 사건들과 쿠바에서의 특별 임무 기간 동안에 받은 감시가 그로 하여금 사회주의에도 자기 혁신이 필요함을 느끼게 하였고, 이를 일깨우는 것이 지식인의 사명이라는 신념을 가져다주었던 것이다. 『초대받은 석상들』은 단지 쿠데타로 무너진 사회주의 천국의 꿈에 대한 진혼곡의 성격을 띤 작품도 아니며, 쿠데타 세력에 항거하기 위해 좌파나 민중을 결집하기 위한 작품도 아니다. 그것은



쿠바 혁명에서 아옌데의 집권에 이르기까지 칠레를 비롯한 전라틴아메리카를 들끓게 했던 사회주의 혁명론의 경직성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이다.

## 참고문헌

- Alegria, Fernando, "La narrativa chilena(1960-1970)", *Nueva narrativa hispanoamericana*, Vol.II, No.1, 1972, pp.59-63.
- Alegria, Fernando, *Nueva historia de la novela hispanoamericana*, Hanover: Ediciones del Norte, 1986.
- Allende, Isabel, *La casa de los espíritus*, Bogotá: Oveja Negra, 1987.
- Dorfman, Ariel, "Jorge Edwards: máscara non grata", *Nueva*, pp.87-91.
- Edwards, Jorge, *Adiós, poeta...*, 2a chilena, Santiago: Tusquets, 1991.
- \_\_\_\_\_, *Los convidados de piedra*, Barcelona: Seix Barral, 1978.
- \_\_\_\_\_, *Desde la cola del dragón. Chile y España: 1973-1977*, Barcelona: Dopesa, 1977.
- \_\_\_\_\_, *Persona non grata*, versión completa, Barcelona: Seix Barral, 1982.
- Jara, René, *Los límites de la representación: la novela chilena del golpe*, Valencia: Fundación Instituto Shakespeare/Instituto del Cine y Radio-Televisión, 1985.
- Jofré, Manuel Alcides, "La novela chilena: 1965-1988", *Los Ensayistas*, No.22-5, 1987-8, pp.191-206.
- Magni, Roberto, "Carta de batalla contra Edwards", *Post data*, marzo-abril, 1974, p.13.
- Neruda, Pablo, *Confieso que he vivido*, Bogotá: Oveja Negra.
- Padilla, Heberto, *La mala memoria*, Barcelona: Plaza & Janes, 1989.
- Rodríguez Isoba, María Teresa, "Los convidados de piedra, o la irrupción de la historia contemporánea en la narrativa de Jorge Edwards", *Anales de literatura hispanoamericana*, No.16, 1987, pp.215-228.
- Urbistondo, Vicente, "Los convidados de piedra, una lectura ecléctica", *Hispanamérica*, No.23-4, 1979, pp.143-152.

Valente, Ignacio, “Reseña” a *Los convidados de piedra*, *El Mercurio*, 25-VI-1978.

*Casa de las Américas*, No.112, “Coloquio sobre literatura chilena de la resistencia chilena de la resistencia y del exilio”, 1979.

【Resumen】

La historia chilena contemporánea como una obsesión de  
suicidio: *Los convidados de piedra* de Jorge Edwards

Woo, Suk Kyun

*Los convidados de piedra*(1978), novela de Jorge Edwards, es una obra que se enfoca en el golpe de Pinochet(1973). Esta obra suscitó una polémica notable sobre el personaje principal, Silverio Molina, quien siendo hijo de un terrateniente se convierte más tarde en comunista. Aunque algunos críticos dieron opiniones favorables sobre el personaje, la mayoría de la crítica insistió en que éste carecía de una moral revolucionaria. Sin embargo, aquellas críticas no parecen estar bien fundamentadas, ya que dicha novela no configura a Silverio como un sujeto con conciencia histórica sino como una persona que no logra escapar de los límites de la estructura social chilena. Además Silverio no desempeña un papel central en la obra. El más importante sería, en cambio, ese narrador anónimo que define la historia contemporánea de Chile como un secreto deseo de muerte desde el golpe contra Balmaceda y su suicidio en 1891. Según él, el golpe de 1973 marca el punto final de este largo proceso del deseo de muerte. Es evidente que el mensaje de *Los convidados de piedra* es el resultado de la transición ideológica del mismo autor. Jorge Edwards había sido izquierdista hasta que los acontecimientos de París y Praga en 1968 le revelaron la necesidad de rechazar el dogmatismo ideológico; tanto el de la

derecha como el de la izquierda. Además, durante su estadía como 'persona non grata' en Cuba, la tierra prometida de los izquierdistas latinoamericanos, se dió cuenta que la verdadera responsabilidad del intelectual no consistía en otorgarle ciega confianza a un determinado sistema social. Su responsabilidad yacía en ejecutar constantes revisiones y críticas de los sistemas. Según esta convicción, podríamos decir que Jorge Edwards no intenta acusar al golpe de Pinochet a través de su obra, como esperaban los izquierdistas. El autor manifiesta un claro rechazo al extremismo ideológico que dominó la historia contemporánea de Chile.